

팩트체크

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



질병관리청



**여름철 유행상황임에도 불구하고,
4급전환을 진행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**

4급전환

① **질병 위험도가 감소하였습니다.**

- ▶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.04% 정도로 낮아져 유행 이후 최저 수치이며,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
- ▶ 중증화율 또한 0.09% 수준으로,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.
- ▶ 여름철 유행 증가세 또한 8월 3주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,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.0 이하를 유지 중입니다.

② **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합니다.**

- ▶ 오미크론 유행 시 최대 3만여개를 동원했던 지정병상 수가 현재 6백여개로 축소되었음에도 가동률 50% 이하 수준으로, 부족함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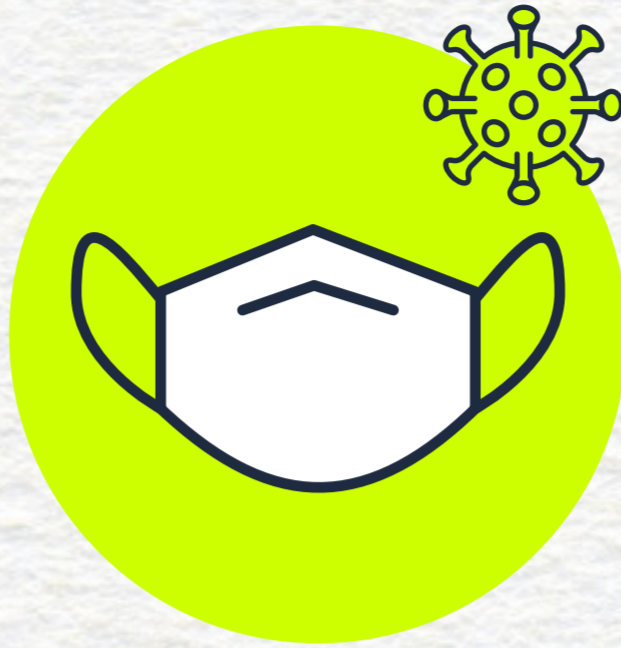
③ **대부분의 국가들이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하고,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**

- ▶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만 확진자 전수 신고를 유지하고 있어, 전 세계 확진자의 85.6%가 한국인 통계 착시 현상 해소가 필요합니다.
- ▶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를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(표본감시체계)로 통합해서 운영하고,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도록 각 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.

이제는 코로나19는 광범위한 방역조치 없이도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. 다만,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고령자, 면역저하자 등에게는 여전히 치명률이 높은 질병으로,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.



**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
현행 유지라고 하는데,
저면 권고로 전환하지 않은
이유는 무엇인가요?**



- ▶ **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대상*은 감염 전파에 취약하고
중증·사망 위험성이 높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이용가능성과
접촉가능성이 높은 시설입니다.**

* (현재 의무 유지 시설) 병원급 의료기관,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

- ▶ **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) 이후에도
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·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
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합니다.**

- ▶ **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현 유행 상황에서,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전면 권고 전환은 4급 전환 외에도
고위험군 보호 등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합니다.
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
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.**



**고위험군에 대해서는
코로나19 검사비를 지원하나요?**



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
고위험군에 대한
검사비 지원을 유지합니다.

- >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60세 이상 환자, 응급실.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의 PCR 및 RAT 검사비를 지원합니다.
 (PCR) 건강보험 부담 40~80%, 환자부담 20~60%
 (RAT) 건강보험 부담 50%, 환자부담 50%

- > 특히, **먹는치료제 처방군**의 경우에는 PCR 검사비의 본인부담금도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**무료로 검사가 가능**합니다.
 더불어,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합니다.

- > 60세 이상, 감염취약시설 종사자,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안정적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